

내년 수능 역대급 N수생 전망...고3 현역들과 경쟁 치열할 듯

출생률 높았던 황금돼지띠 졸업생·최상위권 학생 '반수' 매력될 지역의사제 불수능 여파에 최저 미충족 정시 하향지원...반수·재수 재도전 가능성 커져

대입 정시 모집 전형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예비 고3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현역'들이 역대급 규모의 'N수생'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입시업계에서도 올해 N수생이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90여 개 대학에서 2026학년도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8만6004명으로, 전년(9만5406명) 대비 9402명

줄었다. 그러나 수험생의 총지원 건수는 전년(49만6616건)보다 1만8257건 증가한 51만4873건을 기록했다.

대학이 뽑는 인원은 줄어든 반면,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2007년생) 고3과 15만9000여 명에 달하는 N수생으로 인해 지원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0만1210건이던 정시 모집 탈락 건수는 올해엔 42만8869건으로 6.9%(2만7659건) 상승할 예정이다.

통상 정시 탈락 건수가 늘면 이른바 N수생(수능에 여러 차례 응시하는 수험생)도 많아지게 된다.

여기에 의대 모집 인원 증가와 지역의사제라는 또 다른 핵심 변수까지 떠오르면서 N수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의대 모집 인원의 경우 다음 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연간 700~800명 상단을 올해보다 더 선별하게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최상위권 학생에게는 '수능 재도전'에 대한 구미를 당기게 할 만한 규모다.

실제로 의대 모집 인원이 일시적으로 1500여명 늘었던 2025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은 16만1000여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는 지역 출신 최상위권 학생의 N수 유인으로 꼽힌다.

지역의사제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지방 학생으로서는 의대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린 만큼,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능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종로학원은 정시 탈락자 증가와 의대 관련 정책 변화 등으로 16만명 초반대의 N수생이 나올 것으로 본다.

2004학년도 수능 이후 N수생 응시자가 16만명을 넘긴 것은 2005학년도(16만1524명)와 2025학년도(16만1784명)뿐인데, 올해에는 최소 이에 버금가는 규모의 N수생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의대 모집 인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신설은 N수의 매우 강력한 유인"이라며 "고득점 내신을 보유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노리고 반수나 N수를 선택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입시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불(火)수능'이 올해 입시 판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026학년도 수능은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치는 등 매우 어려웠다고 평가된다. 이에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해 수시에 합격한 대학보다 낮은 대학의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작년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쉽잖을까 하는 생각으로 '반수' (대학에 입학한 상태로 다시 수능을 치르는 것)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등급과 함께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의 실적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평가 점수에 따라 가·마 등급이 부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 혁신적 민원 시책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중대 범죄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치안·행정·NGO가 함께 하는 통합지원 시스템

을 가동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또 학생,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AI 챗봇 '광주 늘봄지니'를 도입해 늘봄학교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3년 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던 시교육청은 민원 수요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민원행정 제도 개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포함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2024년 평가에서는 3단계 뛰어오른 최우수 등급 '가'를 받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및 전국 교육청 최고득점 달성의 성과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인 직원들의 성실한 덕분"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적극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학생선수 운동 중단 숙려 상담제 시행

전남교육청이 운동을 중단하려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선택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운동 중단 숙려 상담을 운영한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상시 운영하며, 1분기 운영 기간은 11일부터 5월13일까지다. 필요할 때 신청을 통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스포츠심리상담사가 진행한다.

학생선수의 운동 중단을 단순한 포기나 탈퇴가 아닌 자신의 삶과 진로를 다시 설계하는 숙고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더욱 긍정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선수들은 심층 상담으로 그동안 운동에 쏟아온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며 자부심을 회복하고, 운동 중단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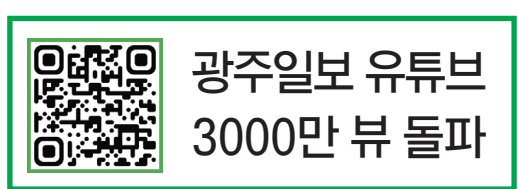
운동 중단 의사 표현 이후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불안을 살피고,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동부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에도 도움을 제공한다.

박재현 전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심층 상담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 쏟아온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도록 돕겠다"라며 "자부심을 회복하고 운동 중단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도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교수들도 AI 열공... 'AI 캠퍼스 대전환' 시동

실습형 집중·심화교육 78명 이상 2학기 'AI MASTER 과정' 준비

전남대학교가 'AI 캠퍼스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교수 AI 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혁신에 나섰다.

9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인문사회·자연이공·보건의료계열 교수를 대상으로 'AI ADVANCED 과정'을 운영해 총 78명의 이수를 배출했다.

이번 과정은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40시간 동안 AI 활용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학문 계열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다. 인문사회계열 30명, 자연이공계열 24명, 보건의료계열 24명 교수가 과정을 이수했다.

AI ADVANCED 과정은 글로벌대약30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HAI-STEP' 2단계 과정으로, KT와 협업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했다.

교수들은 생성형 AI 이해, 수업 텍스트·평가 문항·시각 자료 생성, 데이터 통계 분석, AI 기반 교수설계 모델 수립 등 교육과 연구 현장에



전남대 'AI ADVANCED 과정' 참가 교수들이 수료식을 열고 AI 캠퍼스 대전환의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단계별로 학습했다.

정은경 교육혁신본부장은 "전남대학교가 교수 대상 대규모 AI 집중·심화 교육을 선도적으로 운영한 만큼, 거점국립대 교수 AI 역량 강화 모델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학교는 매달 AI BASIC 과정(프

로프트 엔지니어링, Notion, NotebookLM,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등)을 운영하고, 방학마다 AI ADVANCED 과정을 정기 편성하며, 2026년 2학기 'AI MASTER 과정' 시행을 준비하는 등 교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한의학과, 2026 국시 전국 수석 배출

재학생 전원 합격 실력 과시

동신대학교 한의학과가 2026년도 제81회 한의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제81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동신대 한의학과 김수현(26)씨가 340점 만점에 311점을 획득해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동신대 한의학과는 전국 수석 합격 뿐만 아니라 졸업예정자 35명 전원이 한의사 국시에 합격하며

대내외에 실력을 과시했다.

동신대 한의학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재학생 전원이 국시에 합격한 데 이어 2023년, 2024년에도 재학생 100%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체 교수들이 멘토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제아울림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국가시험에 대비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동신대 한의학과는 광주·나주·목포 등 3개의 부속한방병원과 서울 목동 소재 협력병원인 동신한

방병원을 임상 교육에 활용하며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한의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한의과대학 교수들을 주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인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선도연구센터(MRC),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함께 인류의 백세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의학 교육프로그램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5년), 2020년(4년), 2024년(4년) 연속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의학교육평가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8년 모니터링 평가에서는 우수평가를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스데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해상보험협회
 보상보험협회
 사고보험협회